

호주 한인학생의 적응: 교민과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이혜경**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불고 있는 조기유학 열풍에 대한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기 유학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호주 한인 학생의 적응을 교민과 홀로 있는 조기유학생, 기러기가족의 경우, 부모가 유학 또는 직장 파견으로 함께 가 있는 경우 등 네 집단의 한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심리적 적응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 6월과 7월 사이에 시드니 주정부 토요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과 시드니 성당 중고등부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토요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 31명에 대한 면담자료와 호주 시드니 지역의 이러한 학생들과 학부모를 관찰 및 면담한 자료도 배경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학업, 학교활동 및 학업에 대한 열정, 외국인 친구 사귀기, 호주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있어서 유학생이 교민자녀보다 적응정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홀로 있는 유학생의 적응도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선생님들도 어머니와 함께 또는 양부모와 함께 와 있는 경우보다 홀로 와 있는 유학생의 경우에 실패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단어: 호주, 이민, 조기유학, 학교생활, 사회심리적 적응

I. 들어가는 글

세계화 현상으로 영어가 중요한 문화자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어린나이에 유학을 떠나는 이른바 조기유학의 열풍이 불고 있다.

* 본 연구는 LG연암문화재단의 2001년(2001. 8.1-2002. 7.31) 학술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보내주신 안병철교수님, 그리고 본 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신 시드니 주정부 교육부 자문관인신 김숙희선생님, 토요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안기화선생님 등 토요학교 한국인 선생님들, 린필드 한글학교 김병욱 교장선생님과 그 외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1989년 여행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1990년대 초부터 중고등학생들의 해외유학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일부 부유층에 국한된 현상이었다(안숙, 1993). 그러나 1995년 11월 ‘중고생 불법 미 유학 알선업자 108명 적발’이란 신문기사(조선일보, 1995/11/27)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조기유학과 관련된 기사가 증가하다가, 2000년 1월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상반기 시행예정”이란 기사(조선일보, 2000/1/20)를 시작으로 2000년 한 해 동안 조기유학과 관련된 기사가 20회가 넘었고, 그 이후 매년 20회 이상의 기사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2001년부터 ‘기러기아빠’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였고, 2001년부터는 중국으로의 조기유학(조선일보, 2001/11/05), 2005년에 들어와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에 이어, 멀리 남아공의 카메룬에까지 조기유학을 떠난다는 기사(조선일보, 2005/9/04)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일부 성공한 조기유학생의 경험담도 보여주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하는 경우와 실패 후 귀국하는 경우, 남겨진 기러기 아빠의 자살 또는 죽음, 그리고 외화유출 등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0여명의 전문연구인력을 가진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한국의 조기유학 붐을 일부 부유층의 일탈행동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한국교육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인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동아닷컴, 2005/5/17: 김홍원(2005:7)에서 재인용).

이렇듯 조기유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2000년 정부의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입법예고와 번복을 거치면서 2000년 이후 급증한 현상이다. 물론 2000년부터 전년도와 비교 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던 조기유학의 증가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2003년에는 약간 주춤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만, 2003년에 한 해 동안 2만8천여명이 조기유학을 나갔다(<그림 1><그림 2> 참조).

그러나 조기유학 이슈는 매스컴의 집중적인 관심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그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조기유학과 관련된 국민의식 실태조사 논문이 2편(김홍주, 2001; 김홍원, 2005) 정도 있고, 조기유학생의 적응(안병철, 1997; 조명덕, 2000; 임재훈, 2005)과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엄명용, 2002; 조은, 2004; 최양숙, 2004)가 있기는 하나 아직 그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2002년 6~7월에 시드니 주정부 토요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드니 성당의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토요학교 등 선생님과의 인터뷰자료와 교민 및 조기유학생 학부모들을 관찰 및 면접

한 자료를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고등 학생의 학교생활 및 사회심리적 적응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인 학생들을 교민자녀와 유학생으로, 그리고 유학생은 다시 홀로 간 조기유학생,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경우와 부모가 유학 또는 공무, 사업, 지사 등으로 파견되면서 자녀를 동반한 경우로 나누어 이들 네 집단의 학생들이 호주에서 학교적응, 생활적응, 친구관계,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등 학교 안과 밖의 적응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기유학생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 본 후, 이들 네 집단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연구

조기유학이나 교육이민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 관심보다는 매스컴의 주목을 먼저 받아왔다. 학계에서 조기유학을 다룬 것은 안병철(1997)의 연구를 시작으로 아직 그 양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간의 연구는 조기유학생의 적응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안병철, 1997; 조명덕, 2000; 임재훈, 2005), 조기유학에 대한 의식조사(김홍주, 2001; 김홍원, 2005; 강지연, 2002),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엄명용, 2002; 최경석 외, 2003; 조은 2004; 최양숙, 2004), 그리고 조기유학에 대한 찬반 논쟁 및 안내(한준상 외, 2002, 2004 등)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조기 유학생의 적응에 대해서는 안병철(1997:123)의 연구가 효시로 그는 1996년 2~6월 사이에 북가주 지역에 유학 중인 한국 조기유학생(83명)들을 면접 또는 설문조사하였다.¹⁾ 그는 조기유학생의 유학 동기 및 결정 과정, 지역선정 및 학업적응, 스트레스, 생활적응 등의 문제를 경험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기유학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갖춘 인력 양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외화낭비, 적응문제,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조명덕(2000)은 2000년 6~7월 사이에 미국 서부지역에서, 그리고 2000년 8~9월 사이 국내에서 조기유학생(20명)과 그 부모를 심층면접하여, 조기유학의 유

1) 이 중 고등학생은 48명이며, 나머지는 대학생이었다.

형, 조기유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탐색하고 있다. 우선 조기유학생의 유형을 1)혼자서 유학을 떠나는 경우, 2)부모 중 한명과 함께 떠나는 경우, 3)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 4)한국내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경우로 나누었다. 우선 조기유학을 떠나는 이유는 한국 교육제도의 과도한 경쟁과 불합리성 때문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내신성적의 증시는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담, 세계화 추세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였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유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조기유학을 포함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에, 이는 부모에게 갈등으로 다가오며, 고액의 비용으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성, 이산가족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와 가족의 해체를 지적하고 있다.

임재훈(2005)은 미국 워싱턴 DC 지역에서 조기유학 중인 초·중·고등학생들과 그 가정들 중 10개의 사례를 심층분석하였는데, 조기유학의 유형으로는 1)조기유학이 이민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 2)조기유학이 이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3)친지의 도움으로, 그리고 4)학생 단독으로 조기유학을 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임재훈은 1)미국으로 조기유학을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국교육에 대한 생각이 조기유학 시작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가 3)미국사회에서 이들 조기유학생들의 학업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그가 인터뷰를 했던 학부모들은 한국의 교육과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부터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상류층과 중산층 학부모들 사이에 조기유학에 대한 일종의 균중심리도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즉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무언가 뒤쳐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남들이 다 갔으니 우리도 일단 가고 보자는 식으로 나온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학의 특차전형과 편입제도로 미국의 대학에 “쉽게” 입학한 뒤 “어려운” 한국 대학으로 “쉽게” U턴 편입을 하려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였다. 한편, 그는 현지의 한인사회가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그 영향력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조기유학생들이 한인공동체와 한인친구들에 둘러싸여 학교나 현지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스트레스 등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아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한인에게 둘러싸인 조기유학생들은 미국의 주류사회의 언어나 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주류사회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즉 본래 목적은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러 왔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주류사회와는 거의 단절된 채 언어도 문화도 어느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김홍주(2001:172-173)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1년 3월에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에 대해 초·중·고등학생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에 대해 반대(59%)와 찬성(34%)을 하여,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실제로 조기유학을 보낸 경험이 없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막연한 반대와 그 이유를 보여준 것이었다.

한편 김홍원(2005)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2차 국민 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기유학에 관한 전국적인 국민의식과 실태를 다루었다. 우선 조기유학에 대한 찬반태도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반대(각각 55.7%, 59.4%)가 찬성(각각 21.1%, 16.0%)보다 많았다. 따라서, 2001년의 1차 조사에 비해 학부모의 찬성이 13%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기유학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크므로, 가족별거에 따른 문제로, 그리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31%는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34%는 여건이 된다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하여서, 학부모 3명당 1명꼴로 조기유학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차 국민 의식조사는 조기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는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조기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의 가정배경은 부모가 고학력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가 아버지는 99%, 어머니는 94%였고, 가정의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6%였다. 외국에서의 자녀 보호자 유형은 부모(57.2%), 어머니(16.3%), 전문후견인(5.9%), 친척(5.6%), 외국인 가정(5.2%), 학교기숙사(2.0%)였고, 42.8%의 학생이 부모 중 한명이나, 다른 사람과 또는 혼자서 유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원(2005:32)은 한국으로 귀국한 조기유학생들이 유학 가기 전과 비교할 때 현재의 학업성취도가 어떠한가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상위권(상위 10% 이내)과 중하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유학 전보다 귀국 후에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강지연(2002)은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를 대

상으로 심층면접(7명)과 설문조사(212명)를 하여, 그들의 교육의식과 조기유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 교육의식의 특징은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이 높고 한국 공교육과 교육문제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의 조기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와 선택하지 않은 학부모 두 집단 간에는 학부모의 교육의식이란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요인과 해외 유학에 대한 친밀도와 정보습득 능력이라는 사회문화적 자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중산층 이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²⁾ 우선 조은(2004)은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도시에서 만난 16 기러기 가족을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하였다. 그 사례가족의 유형은 1)부부 어느 쪽도 미국 거주 경험이 없지만 엄마가 대학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은 경제력이 있는 경우, 2)해외유학이나 미국 거주 경험이 있고 남편이 해외 상사나 교환교수로 오게 되어 따라 왔다가 부인과 아이들만 남은 경우, 3)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냈다가 엄마가 방문비자로 와서 눌러 앉은 경우, 4)남편이 사업 등으로 거래처를 두고 있어서 부인과 자녀를 보낸 경우, 그리고 5)부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그 유형별로 가족생활 및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차이가 없으며, ‘돈 있는 아빠’와 ‘영어가 되는 엄마’이거나 자식 중심의 부부로 높은 자녀 교육열과 사회이동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조은은 기러기 가족 현상이란 한국의 특정계층 가족이 세계화라는 거시구조에 기민하게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기러기 가족의 출현은 해외에 자녀 교육을 위해 부인과 자녀들을 보낼만한 자본을 축적한 계층이 한국사회에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은 철저하게 혈연주의적 배타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차별화를 재생산하는 장이며, 기러기 가족 현상이란 한국의 도구적 가족주의와 계층이동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세계화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이라고 파악한다.

한편, 이러한 기러기가족 현상으로 한국에 남겨진 ‘기러기 아빠’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 중 최양숙(2004)은 20명의 기러기 아빠를 면담하였다. 이들이 비동거 가족이 되는 중요한 이유와 동기는 물론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나, 그 배경에는 부모의 나르시시즘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 이는 다시 기러기 아빠(엄명용, 2002; 최양숙, 2004), 기러기 가족(최경석 외, 2003), 그리고 기러기 엄마에 대한 연구(조은 2004)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과 학력 중시 현상 속에서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을 타고 이들은 자녀 조기유학을 위해 가족 비동거라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비동거 현상은 교육문제임과 동시에 가족변화이고 동조라는 사회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결론짓는다.

마지막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찬반논란은 매스컴의 부정적인 시각과 50여권에 달하는 베스트셀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죽도 밥도 안된 조기유학], [조기유학 잘 못 가면 내 아이 폐인된다], [조기유학, 절대로 보내지 말라]는 책부터 [조기유학 무조건 떠나라], [서울대보다 하버드를 겨냥하라], [조기유학 길라잡이] 등 50여권에 가까운 책들이 책방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입장은 국민 의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거나, 조기유학의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조기유학 가족들의 선택에 지침이 되고자 하고 있다. 주로 지적되는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측면은 조기유학생의 현지 학업 및 생활 부적응, 자아정체성 혼란, 가족이산에 따른 가족문제 및 해체, 과도한 경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복지 및 외화낭비, 계층적 위화감 조성 등이다. 한편 조기유학의 긍정적인 측면은 영어의 조기습득, 국제적 경험 및 시각 배양, 학생의 다양한 개성 발휘 등이다.

특히 한준상 외(2002, 2004)는 2001년 4월과 6월 사이 조기유학을 보낸 학부모 6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조기유학은 학습자의 교육선택권이며, 학습자가 조기유학이라는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기유학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조기유학 현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하겠다. 즉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에게 알맞은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학업과 정서적인 적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교육과 외국 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 국외연구

조기유학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들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국제화 및 상품화를 다루는 연구(Stewart, 1996; Champion, 1997; Green, 1999; Habu, 2000; Phillips and Stahl, 2001; Mazzarol and Soutar, 2002; Bennell and Pearce, 2003)들이 있다.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다루는 연구는 많으나, 이는

주로 이민 1.5세나 2세의 현지 적응과정이거나, 주로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초중고 조기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나탄손과 마르센코(Nathanson and Marcenko, 1995)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탄손과 마르센코(Nathanson and Marcenko, 1995)는 부모를 따라 동경에 와서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8학년 학생(174명)들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 동경에 사는 것에 대한 느낌, 학업성취, 가족 및 교우관계, 그리고 정서적 적응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생활로 안정된 가족생활과 부모와의 강한 유대는 이들 유학생의 안녕(sense of well-being)에 중요한 요소였다.

최근 국외에서도 특히 홍콩, 대만의 경우 우리처럼 자녀교육을 위해 중산층의 기혼여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고, 생계책임을 진 남편이 본국에 남는 초국적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Chee, 2003; UNESCO, 2003: 조은 2004:151에서 재인용). 화교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부유층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아이들만 외국에 떨어뜨리고 부모는 비행기로 오가며 부모 노릇을 하는 이른바 ‘낙하산 아이(parachut kids)’와 ‘우주가족(astronaut families)’도 등장하고 있다(Ong, 1999: 조은 2004:151에서 재인용).

한편, 호주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연구(Shu and Hawthorne, 1995; Gao and Liu, 1998; Andressen, 2001)도 있다. 이 가운데 안드레센(Andressen, 2001)은 한국 유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한국을 몇 차례나 방문하면서, 호주의 관료, 호주 교육부의 한국인 종사자, 교육관련 기관 종사자, 유학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생 등 총 25명을 심층면접하였다. 그리고 호주국제교육부(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가 1998년 서울(620명)과 부산(42명)에서 각각 실시한 한국인 학생 설문조사 자료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한국 교육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아시아 교육의 문제점인 창의성 교육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ndressen, 2001:5). 더욱이 영어교육은 수단이며, 온 국민이 다 할 필요는 없는데, 한국에서의 영어열풍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하였다.

Ⅲ. 자료 및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시드니 소재 12개 공립학교와 12개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설문조사 협조를 의뢰하였으나, ‘학생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였다. 2002년 5월 한 달 간 시드니 주정부 토요일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설문조사 협조를 의뢰하여, 허락을 받고 2002년 6월과 7월 사이에 Chatswood, Dulwich, Stathfield, Grantham의 4곳 토요일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설문조사할 수 있었다.³⁾ 한국어 선생님의 협조 하에 조사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한글과 영어 설문지로 조사되었다. 한편, 본인이 다니고 있던 시드니 성당의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기간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1> 참조). 그 밖에도 토요일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 21명과 호주로 파견 나와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 린필드학교의 한국인 선생님들 10명을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까지 시드니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학생들과 그 학부모를 관찰 및 면담한 자료도 배경자료로 활용하였다.

IV. 조기유학 추이와 호주의 교육제도

1. 조기유학의 개념

조기유학에 대한 개념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국민을 모두 지칭하고 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김홍주, 2001; 김홍원, 2005)은 ‘초·중등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준상 외(2002:201)는 조기유학생이란 ‘순수하게 한국국적만을 가지고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 초·중고등학교에 재

3) 호주 시드니의 초등학교 중에는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몇 있으나, 중·고등학교에는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다. 대신 학생이 신청을 하면, 시드니 주정부 토요일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정규과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한국어’ 과목을 12학년 말에 치루는 대학입시 시험(Hish School Certificate)의 한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과 최근 이민 온 교민의 자녀들 약 400명이 2002년 당시 시드니 주정부 토요일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학하고 있는 자'로 부모의 파견근무나 유학 등으로 동행한 학생들은 조기유학생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준상 외를 제외한 다른 선행연구들은 모두 이러한 협의의 개념과는 달리 부모의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등학생의 유학을 조기유학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도 한준상 외(2002; 2004)의 협의의 조기유학생 개념과는 달리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초기에는 부모의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동행하였다가 뒤에 홀로 남겨지는 경우나 어머니와 함께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부모가 이민을 간 경우에도 상당수는 그 이유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갔다고 하기 때문이다. 인터뷰한 한 교민 학부모는 “요새는 이민이란 현상도 ‘왔다갔다’하는 거지요, 우리도 애들 (대학)공부 다 끝나면 돌아 갈 거예요” 하여서, 이민과 순수 조기유학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기 유학 정책의 변화

1989년 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관광이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편법으로 유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7년까지만 해도 조기유학은 법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대학생 수준의 유학만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조기유학은 합법적인 전학이 아니라 초·중등학교를 자퇴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조기유학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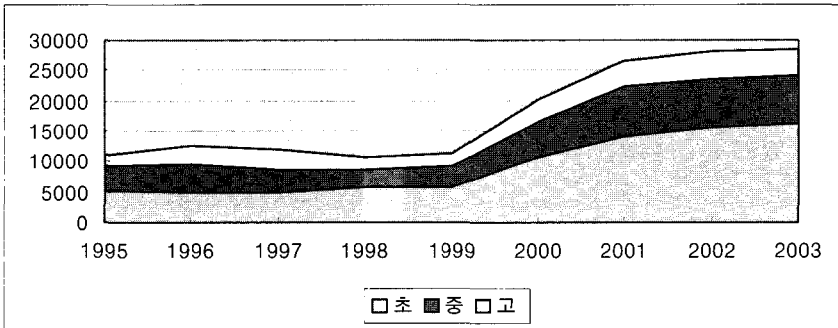
이러한 편법적인 조기유학이 증가하자, 정부는 1997년 5월 1일 유학중인 남학생의 병무연기를 규제하고, 유학용도 관련서류 발급을 금지하였다. 또한 조기유학을 막기 위해 조기유학 자녀를 둔 학부모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도 하였다(한준상 외, 2002:205).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조기유학은 증가하였고,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기유학에 대한 규제도 철폐하고자 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입법예고 되었다. 그 이후 1999년 11월 30일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조기유학의 전면개방을 고려하였고, 2000년 3월부터는 초·중고 해외유학 전면 자유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로 인한 조기유학이 급증하자, 매스컴들은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결국 2000년 8월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은 철회되었다. 대신 정부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다. 이로 인한 조기유학 준비생들의 혼란은

극심하여, 이들의 반발과 정책의 혼선으로 정부는 조기유학의 단계적 자유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즉 과거에는 고교졸업 이상자 혹은 학교장, 시도교육감 추천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의 조기유학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중학교 졸업자 이상에게 조기유학을 허용하기로 하였다(한준상 외, 2002:205-206).

3. 조기유학생 규모와 유학송금

<그림 1>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의 유학 추이를 보여준다.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이들 유학생의 규모가 약간 주춤하기는 하지만,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약 1만1천~1만 2천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2000년에는 그 규모가 갑자기 증가하여 2만여명에 달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2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더 많이 해외로 나갔음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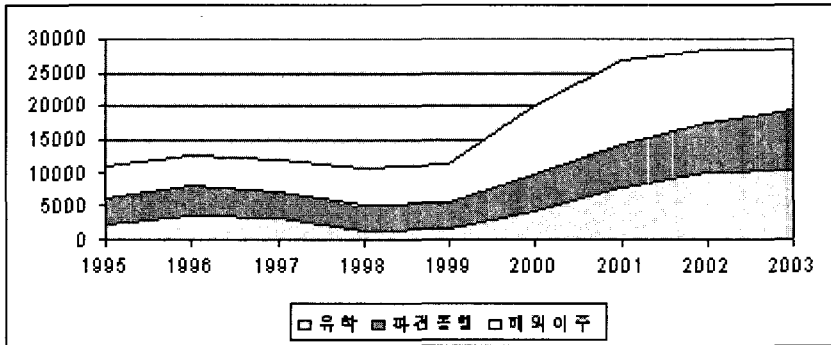
자료: 1995-1996: 강지연(2002:30)
1997-2003: 교육인적자원부(2003)

<그림 1> 학교유형별 해외 유학생 규모, 1995-2003년

<그림 2>는 조기유학생의 규모를 그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해외이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1년부터 순수유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순수유학의 비중이 해외이주의 규모를 능가하였다. 조기유학 현상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현상으로, 2003년 조기유학생의 71%가 서울경기도 출신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한국은 총 해외유학비용으로 2003년도에 46억 5천만 달러, 2004년도에는 51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국내로 유치한 외국인 학생으로부터 우리가 벌어들

들인 돈이 2003년 1억 9천만 달러, 2004년 2억 6천만 달러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교육서비스 수지적자 국가라고 한다(김홍원, 2005:6).



자료: 1995-1996: 강지연(2002:30)
 1997-2003: 교육인적자원부(2003)

<그림 2> 이주유형별 유학생 규모, 1995-2003년

초·중·고등학생의 조기유학 비용을 따로 살펴볼 경우, 2004년도에 이러한 경비는 1억 8천 3백만 달러로, 이는 우리 돈으로 약 2,200억원이다. 이러한 금액에는 단순송금과 출국 시 개인이 가지고 나간 금액은 누락되었으므로, 실제로 조기유학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한다(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2005: 김홍원, 2005:6-7에서 재인용).

4. 호주의 교육제도

호주에서는 6세부터 15세 사이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학제는 우리나라의 학제와 비슷하다. 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3~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학기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하여, 1년이 4학기(1월, 4월, 7월, 10월)로 나뉘어져 있다. 2001년 7월 호주 학생비자 규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졸업 이상자만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상 초등학생의 호주유학은 금지된 상태이다. 중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Y10까지만 마치고 곧바로 직업전선에 뛰어 들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립기술전문대(TAFE)에 들어가 취업을 위한 심도 있는 기술교육을 받는

다. 그러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Y11, 12학년으로 진학하여 대학입시를 준비한다.

호주의 고등학교는 중등부(Y7-10)와 고등부(Y11-12) 과정으로 나뉘어 지는데, 학급당 학생 수는 보통 20-25명 정도로 주로 토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처음 1-2년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하지만, 이후에는 영어, 수학, 인문 사회과학, 체육 등의 필수과목과 외국어, 경제, 역사, 지리, 미술, 음악, 컴퓨터 등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Y11~12학년은 대학 진학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며, 이 2년간의 내신성적과 Y12학년 말에 치루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High School Certificate, HSC)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 HSC 시험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시드니 주정부 토요학교의 한국인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호주의 교육제도는 호주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을 길러내려는 것으로,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즉 *peaceful*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자는 것인데, 따라서 *communication skill*을 중시하고, *social skill*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group work*를 강조하고, *presentation*을 많이 시킨다. 그런데 한국학생들은 함께하는 것(협동)에 익숙하지 않고, 말을 잘 안 해서 발표 시에 문제가 된다. 나중에 대학에 가더라도 중도에 *quit*하는 율이 높다. 이 곳 학생들은 *team sports*, *birthday party*, *sleep over* 등도 많이 하여 *social skill*을 키우는데, 한국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험이나 입시준비만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V. 호주 교민자녀 및 조기유학생의 적응

1. 조기유학생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교민자녀와 유학생을 구분하기가 매우 모호하였다. 그 이유는 부모가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의 경우에도 부모가 처음에는 파견과 유학 등으로 호주에 왔다가 그냥 눌러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을 온 경우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모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부모가 호주로 이민을 왔거나 현재 영주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교민자녀로, 그리고 부모가 유학 또는 파견 등으로 단기간 왔거나, 그 후 어머니와 함께 또는 혼자 남은 경우는 유학생

으로, 그리고 혼자 조기유학을 온 경우도 유학생으로 분류하였다.

2002년 호주 주정부 토요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총 400여명으로 그 가운데 281명이 조사되었으며, 시드니 성당의 중고등부 학생 55명이 조사되었다(<표 1>). 이들은 부모님의 이민 여부에 따라 교민학생(117명), 부모가 공무파견, 지사파견, 유학 등으로 호주로 자녀를 데려온 경우(양부모계심, 88명),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호주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57명), 홀로 남겨졌거나 혼자 유학 온 경우(74명)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토요학교 선생님과 인터뷰에 의하면, “최근 한국 유학생의 증가로 교민 자녀들은 한국어로 입시경쟁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정부 토요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 유학생이며, 교민자녀는 비교적 최근에 이민온 자녀들”이라고 하였다.

<표 1> 조사장소별 호주 한인학생 유형별 규모

	총합계	교민자녀	유학생			
			소계	홀로	기러기가족	양부모계심
토요학교	281명	81명	200명	69	52	79
성당	55명	36명	19명	5	5	9
합계	336명	117명	219명	74	57	88

<표 2>에 의하면, 교민자녀에 비해 조기유학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으며, 교민자녀는 11-12학년에 재학 중인 고학력 학생이 29%에 불과한데, 유학생의 경우는 63~88%로 매우 많으며, 특히 홀로 있는 유학생 가운데 고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호주 전체 학생들은 약 25% 정도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음에 비해, 교민자녀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있는 유학생은 22~28%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홀로 있는 유학생들은 60%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홀로 있는 유학생들이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⁴⁾ 그러나 홀로 있는 유학생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학교 기숙사가 15%밖에 안 되었고, 친척이나 이는 한국인의 집에 37%, 한국인 집에서 하숙 또는 홈스테이가 29%, 외국인 집에서 홈스테이 7%, 그리고 부모가 렌

4) 기러기 가족 유형 57명 중 5명은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5) 호주에서는 교과과정이나 학습방법에 있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별 다른 차이는 없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성공회, 천주교, 장로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학비는 공립보다 20% 정도 비싸다. 공립학교는 기숙사가 없으나, 사립학교 중에도 기숙사가 없는 곳이 있다.

트한 집에서 형제와 함께 있는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표 2〉 응답학생의 특성 및 부모배경

	교민자녀 (117명)	유학생		
		홀로 (74명)	기러기가족 (57명)	양부모계심 (88명)
성별: 여학생%	45.3	54.1	56.1	52.3
학년: 11-12학년%	29.0	87.8	71.9	62.5
사립%	21.6	59.5	28.1	25.0
호주출생	46.2	-	-	-
호주체류기간(년)	11.4 (4.6)	2.2 (1.1)	3.2 (1.7)	3.3 (1.6)
아버지 학력(대학이상)	70.5	83.8	81.5	85.9
어머니 학력(대학이상)	55.4	60.9	69.0	61.9
아버지 직업				
전문직	7.7	16.2	29.8	14.4
사업/경영가	26.5	56.8	31.6	31.8

교민자녀들 중 호주에서 출생한 경우는 절반 가까이 되며, 따라서 호주에서의 체류기간은 집단별로 차이가 커서, 교민자녀는 평균 11년을 그러나 조기유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2~3년을 호주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부모의 학력은 교민이나 조기유학생 모두 상당히 높으나, 조기유학생의 부모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더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교민의 경우에는 유학생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적이거나 사업/경영가인 경우가 낮았다.

2. 이주동기, 한국을 떠난 이유 및 유학 결정 과정

학생들에게 같은 영어권인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연줄이동 (chain-migration) 현상이 보여서, 호주에 친척 등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⁶⁾ 그 다음으로는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이유였다. 한편, 토요학교 등의 선생님(31분)들과의 인터뷰에서는 같은 영어권 국가임에도 미국보다 학비가 30%는 저렴하고 생활비도 저렴하다(18명), 안전한 치안상태(14명), 자연환경(6명), 미국보다 입학이 쉽거나 비자를 얻기가 쉬워서(5명), 친척 등 아는 사람이

6) 안병철(1997:129)의 조사에서도 조기유학은 일종의 연줄이동(chain migration)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있어서(3명) 호주로 학생들이 유학을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 호주로 오게 된 이유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	양부모
친척이 호주에 있어서	9.4	40.0	21.6	34.2
부모님의 친구가 호주에 있어서	6.3	22.9	27.5	6.3
부모님이 호주로 이민 오셔서	100.0	0	0	0
호주가 미국보다 학비 생활비 저렴	0	34.3	29.4	11.4
미국학교보다 입학허가서 받기 쉬워	0	14.3	15.7	3.8

*복수응답이 가능함

본인의 교육 때문에 호주로 왔다면, 한국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새로운 경험’,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교육방식이 싫거나 입시체도가 싫어서 왔다는 응답도 20% 이상이었다(<표 4>).

호주로의 유학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들이 중고등학생이므로 부모의 결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물론 홀로 유학을 감행한 경우에는 30%가 본인이 먼저 또는 대부분 결정했다고 하였지만, 이들의 70%는 부모님이 먼저 또는 대부분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표 5>). 그리고 유학생의 학교지원은 아는 사람이 대부분 도와주고 있으나, 유학원에서 알아서 학교지원을 해 주었다는 경우가 20~25% 되었다.

〈표 4〉 한국을 떠난 이유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	양부모
1)한국학교의 교육방식이 싫어서	-	16.3	9.1	19.7
2)한국의 입시체도가 싫어서	-	4.7	11.4	9.8
3)외국에서 새로운경험을 해보기위해	-	30.2	22.7	21.3
4)영어를 배우기 위해	-	18.6	15.9	18.0
5)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	18.6	34.1	26.2
6)기타	-	11.6	6.8	4.9
합 계	-	100.0	100.0	100.0

〈표 5〉 호주로의 유학을 결정한 과정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	양부모
1)먼저 부모님 권유 후, 본인동의	-	65.7	51.0	37.5
2)먼저 본인결정 후, 부모님 승락	-	22.9	8.2	4.2
3)부모님이 대부분 다 결정	-	4.3	38.8	55.6
4)본인이 대부분 다 결정	-	7.1	2.0	2.8
합 계	-	100.0	100.0	100.0

3. 학업 및 학교 생활의 적응

<표 6>은 한국과 호주에서의 성적을 보여주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교민자녀(32명)와 홀로 있는 유학생의 성적분포가 유사하여, 44-48%가 80-89점 사이였다고 응답하였음에 비해, 기러기 가족이나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성적이 최상위권(90-100점)에 속했다는 응답이 30% 또는 그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성적은 기러기 가족이나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유학생이 더 높은 편이었다. 호주에서의 성적은 교민자녀인 경우가 가장 높아서 상위 10% 이내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였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13%, 홀로 유학을 온 경우에는 7%, 그리고 기러기 가족으로 사는 경우에는 2%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호주에서의 성적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도 교민자녀가 훨씬 더 높았다.

〈표 6〉 한국에서의 성적과 호주에서의 성적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가족	양부모계심
한국에서의 성적				
80점 미만	31.2	28.2	28.0	31.0
80-89점	43.8	47.9	42.0	36.9
90-100점	25.0	23.9	30.0	32.1
호주에서의 성적				
상위 30% 이상	55.0	79.8	71.7	61.0
상위 10-29%	28.8	13.0	26.4	26.4
상위 10%이내	16.2	7.2	1.9	12.6
호주성적 만족한다	53.1	22.2	32.2	41.3

<표 7>은 호주에서의 성적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학생의 특성, 부모의 배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민 자녀와 세 가지 유형의 유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7) 이에 의하면, 저학년(Y7-10학년)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호주에서의 성적이 높아지며, 이러한 학생특성 및 부모배경을 다 통제한 후에도 교민자녀와 비교할 때 유학생 세 집단이 모두 유의미하게 성적이 낮았다. 이러한 모델 1을 단계분석해 보면, 저학년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홀로 온 유학생일수록 호주에서의 성적이 낮았다(모델 2). 이러한 변인 외에 한국에서의 성적과 현재의 영어실력을 함께 통제하여 보면, 한국에서의 성적과 현재의 영어실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교민 자녀 중 한국에서의 성적이 있었던 경우가 32명밖에 없으므로, 유학생 세 집단만을 회귀분석 하여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즉 현재 호주에서의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성적과 현재의 영어실력이었다.

<표 7> 호주에서의 성적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한인 학생		유학생만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a	2.671**	2.588**	2.514**	.208	.345
D남학생	-.084	-	-.134	-.003	-
D11-12학년	-.250+	-.362*	-.163	.108	-
D사립	-.156	-	-.329+	-.243	-
모-학력	.230*	.199*	.208+	.049	-
D부-전문직	-.036	-	-.270	-.104	-
D부-사업가	.145	-	.092	.212	-
D홀로유학	-.562**	-.317*	-.212	-.149	-
D기러기가족	-.489*	-	-.148	-.129	-
D양부모함께	-.288+	-			
한국에서의 성적				.265**	.263**
영어실력				.425**	.434**
R2	.098**	.069**	.059	.219**	.195**

** : p<0.01 수준에서; * : p<0.05 수준에서; +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모델2와 모델5: 단계분석임.

7)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부표 1>을 참조하시오.

<표 8>에 의하면, 학교 정규수업 외로 합창단, 보컬그룹, 오케스트라, 연극, 운동 등 교내 학교활동을 하는 경우는 교민자녀(49%)가 많았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는 교내 학교활동에 참여 정도가 낮았다. 특히 홀로 온 유학생과 기러기 가족의 경우가 더 낮은 편이었다. 한편, 학교 밖에서 과외수업을 받는 경우는 교민 자녀이건 유학생이건 매우 많으며, 교민자녀와 홀로 온 유학생은 평균 한 과목 정도를 그러나 기러기 가족과 양부모와 함께 있는 유학생은 평균 두 과목을 배우러 다니고 있었다. 이들이 주로 배우는 과외 과목은 영어, 수학, 컴퓨터, 스포츠 등이었다.

<표 8> 학교활동 및 과외수업 정도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가족	양부모계심
정규수업 외 학교활동	48.7	14.9	17.5	24.1
학교수업 이외 과외수업 받음	83.8	74.3	86.0	88.6
과외과목의 평균 개수(s.d.)	1.3(1.4)	1.1(1.1)	1.6(1.4)	1.7(1.5)

<표 9>에서 학업에 대한 흥미정도를 살펴보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있다’, ‘학교의 모든 활동에 열심이다’와 ‘한국의 친구들에게 호주 유학을 추천하고 싶다’는 양부모 유학생에게 가장 높았고, ‘학교 공부에 대해 만족한다’와 ‘호주는 공부하기 좋은 국가이다’는 양부모 유학생과 교민 자녀에게 가장 높았다. 그러나 홀로 온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며, ‘거의 매일 학교에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학교에 간다’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다.

<표 9> 학업에의 열정 정도

나는...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	양부모
1)학교 공부에 흥미가 있다	43.6	46.0	47.4	53.4
2)학교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간다	29.9	35.6	29.8	25.0
3)학교의 모든 활동에 열심이다	34.4	23.0	29.9	42.0
4)학교공부에 대해 만족한다	39.6	17.8	22.8	37.5
5)호주는 공부하기 좋은 국가이다	66.7	56.8	63.1	66.0
6)한국친구에게 호주유학 추천	34.5	27.0	33.4	42.0
학업열정 = (1,2,3,4)/4	3.14	2.95	3.13	3.34
(s.d.)	(0.79)	(0.88)	(0.85)	(0.85)

<표 10>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있다, 학교 가기가 싫지 않다, 학교 활동에 열심이다, 학교 공부에 대해 만족한다는 4개의 질문을 합하여 ‘학업열정’이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이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학업에의 열정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홀로 있는 유학생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모델 1). 한편 학업에의 열정은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부모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홀로 있는 유학생일수록 학업에의 열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모델 2). 이러한 현상은 유학생만을 따로 분석해 보아도 그리고 체류기간을 통제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홀로 있는 유학생의 학업열중도가 가장 낮았다(모델 3과 4).

〈표 10〉 학업 열정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한인학생		유학생만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a	2.428**	3.058**	2.556**	3.317**
D남학생	-.066	.002	-.007	.055
D11-12학년	-.091	-.088	-.073	-.062
D사립	.158	.164	.100	.098
모-학력	.235**	.198**	.222*	.170 +
D부-전문직	-.181	-.137	-.054	-.111
D부-사업가	-.209 +	-.164	-.102	-.105
D홀로유학	-.196 +	-.307**	-.362*	-.461**
D기러기가족	-.037	-.024	-.232	-.172
D양부모함께	.116	.183		
부모-비신뢰		-.241**		-.266**
체류기간			.008	.010
R2	.096**	.151**	.075*	.136**

** : $p < 0.01$ 수준에서; * : $p < 0.05$ 수준에서; +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11>는 학교생활에서 힘든 점, 친구의 인종 및 친구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업’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이러한 학업에의 어려움은 홀로 온 유학생의 경우가 가장 심하였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한 반면에 교민의 자녀들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⁸⁾ 그리고 네 집단 모두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한국인

친구였으며,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은 유학생 집단에게 높았고, 특히 혼자 온 유학생의 경우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자란 1.5세나 2세인 교민자녀들도 “학년이 어릴 때는 함께 놀았지만, Y7이 되면 벌써 아시아인과 호주계로 짝 나뉘어 진다”고 하였다. 유학생들은 “한국 아이들은 호주계에 끼일 수가 없다” “완전히 패가 나뉘어서 논다” “영어를 못한다고 왕따를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같은 반 아이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당한다고 느끼는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홀로 온 유학생의 경우가 그렇게 느낀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따돌림과 차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냥 참는다’라고 하였다. 임재훈(2005:70)이 지적하였듯이, 미국에서도 다른 소수인종에 비해 한국계 미국인들이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대해 더 수동적인 전략을 취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것이다.) 토요학교 한국인 교사이며 동시에 학부모이기도 한 교민은 이런 경우에 자녀에게 “다른 나라에 와서 사니,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일어 날 수 있다. 그러니 참아라”라고 한다고 하였다. 유학생인 한 학생은 “선생님께 이야기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 지금은 이야기도 안 한다”라고 하였다.

〈표 11〉 학교생활에 힘든 점, 친구관계, 차별과 편견 및 이에 대한 대응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가족	양부모계심
학교생활 중 힘든 점:				
학업	48.1	66.2	57.1	51.8
한국인 친구관계	6.5	4.2	3.6	3.5
외국인 친구관계	8.3	16.9	21.4	23.5
선생님과의 관계	22.2	1.4	7.1	4.7
가장 가까운 친구 인종:				
한국인	72.5	87.1	86.0	84.9
아시아인	15.6	8.6	10.5	9.3
비아시아인	11.9	4.3	3.5	5.8
외국인친구-어려움 있음	13.9	66.3	59.6	54.5
따돌림 경험(왕따%)	21.6	14.9	19.3	24.1
급우-편견차별있음(%)	29.0	60.8	49.2	51.1
선생님-편견차별있음(%)	40.2	62.2	55.4	43.2
대응: 그냥참는다(%)	33.0	45.5	44.0	51.3

8) 안병철(1997:145)의 연구에서 미국 북가주 지역의 조기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업(54%), 이성문제(21%), 향수병(23%), 경제적인 문제(4%) 등이었다.
 9) 다른 소수인종 집단에 비해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대해 더 수동적인 전략을 취한다는 보고(Bjorck and Cuthbertson, 2001: 임재훈(2005:70)에서 재인용)가 있다.

4. 사회심리적 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증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사회심리적인 즉 정서적인 적응이 어떠한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위의 한인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라고 생각합니까?”란 질문과 “현재 본인은 호주에서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을 하였다. 교민자녀는 주위의 한인 학생들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79%) 받지만, 본인은 이보다는 적게(56%)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유학생 집단은 교민자녀에 비해 주위학생들도 그리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12>).

한편 우울증의 징후를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도 <표 12>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6개 항목 가운데 ‘힘이 없고 몸이 쳐진다’, ‘잠이 잘 안 온다’, ‘종종 울고 싶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낀다’란 4개 항목에 있어서 교민자녀와 유학생 집단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표 12〉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증 정도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가족	양부모계심
주위학생 스트레스 정도	79.3	94.6	94.8	88.5
본인 스트레스 정도	56.4	89.2	91.3	87.4
우울증:	8.0	11.1	16.4	18.4
1)입맛이 없다	7.2	4.1	7.2	13.0
2)힘없고 몸이 쳐진다	26.5	40.3	36.3	30.3
3)잠이 잘 안온다	17.0	18.0	21.8	20.7
4)종종 울고 싶다	8.9	19.2	11.2	16.1
5)외로움을 느낀다	12.4	38.4	30.9	26.4
6)매사에 흥미를 잃는다	18.8	27.4	16.4	16.3
우울증6합 평균	1.59	1.88	1.78	1.74
(s.d.)	(0.50)	(0.55)	(0.53)	(0.55)

<표 13>은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는 고학력일수록, 사립학교에 다닐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으며, 교민자녀와 비교할 때 3가지 유형의 유학생 모두가 스트레스가 높았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는 물론 호주에서의 성적이 낮을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모델3), 학교성적보다는 학생들의 특성과 부모배경, 그리고 유학생 집단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14>는 <표 12>의 6개 우울증 항목을 합하여 그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이다. 이러한 우울증의 정도는 여학생일수록, 고학년일수록, 그리고 유학생일수록 더 높았으나(모델 1), 가장 효율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학생의 특성이었다(모델 2). 호주에서의 성적을 더 고려해보면, 호주성적이 낮을수록 우울증 정도가 높아지지만, 이 경우에도 여학생일수록, 고학년일수록 우울증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모델 3, 모델 4).

〈표 13〉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a	3.088**	3.009**	3.176**	2.941**
D남학생	-.038	-	-.034	-
D11-12학년	.534**	.546**	.535**	.563**
D사립	.228*	.232*	.228*	.243*
모-학력	-.163*	-.162*	-.142*	-.158*
D부-전문직	-.141	-	-.010	-
D부-사업가	-.006	-	.024	-
D홀로유학	.428**	.446**	.420**	.477**
D기러기가족	.745**	.753**	.733**	.771**
D양부모함께	.510**	.513**	.526**	.550**
호주성적			-.068 +	-
R2	.293**	.288**	.310**	.300**

** : p<0.01 수준에서; * : p<0.05 수준에서; +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모델 2와 모델4: 단계분석임.

〈표 14〉 우울증(우울증6합)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a	1.876**	1.716**	2.090**	2.021**
D남학생	-.194**	-.190**	-.215**	-.215**
D11-12학년	.132 +	.212**	.096	.159*
D사립	.037	-	.018	-
모-학력	-.062	-	-.050	-
D부-전문직	.083	-	.110	-
D부-사업가	-.001	-	.001	-
D홀로유학	.170 +	-	.156 +	-
D기러기가족	.103	-	.064	-
D양부모함께	.146 +	-	.134 +	-
호주성적			-.071*	-.087**
R2	.091**	.068**	.118**	.099**

** : p<0.01 수준에서; * : p<0.05 수준에서; +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모델 2와 모델4: 단계분석임.

5. 유학결정 및 호주생활 만족도

<표 15>는 “호주로 유학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에 대해 잘 내린 결정이라 만족한다는 응답은 유학생 세 집단별로 별 차이가 없이 55%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유학생들은 50% 이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교민 자녀들은 11%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조기유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5> 호주로의 유학결정 및 호주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교민자녀	유학생		
		홀로	기러기	양부모
호주 유학결정에 대해 지금 만족(%)	-	57.1	55.1	57.5
해외유학생 한국발전에 도움(%)	10.7	57.1	53.1	55.2
고등학교-한국에서 다니고 싶다(%)	9.9	7.7	19.6	18.1
대학교-한국에서 다니고 싶다(%)	16.0	22.9	25.0	38.6
희망취업국가(한국%)	25.0	57.5	53.8	52.9
장래살고싶은 국가(한국%)	28.2	62.2	47.4	53.4
호주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만족한다)	52.9	22.9	29.4	41.8

한편 “귀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어느 국가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러기가족 유학생과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20% 가까이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는 응답은 교민자녀(16%), 홀로 온 유학생(23%), 기러기 가족(25%), 양부모 가족(39%)로 나타나서 유학생의 1/4 또는 1/3은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장래 직업을 가진다면 어느 국가에서 일하고 싶습니까?”와 “장래 가장 살고 싶은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란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취업 또는 살고 싶다는 경우가 교민자녀(25~28%), 유학생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호주생활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에 대해서는 교민자녀는 5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데 비해, 유학생은 이 보다는 적어서 홀로 있는 유학생은 23%,

기러기 가족인 경우에는 29%, 그리고 양부모와 함께 있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¹⁰⁾

<표 16>은 호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회귀분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며, 유학생 집단이 교민자녀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홀로 와 있는 유학생의 경우가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모델 1과 2). 학생특성, 부모배경, 유학생 유형 외에 호주성적과 부모의 신뢰정도를 더 통제하여도 고학력일수록, 홀로 온 유학생일수록 호주생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호주학교에서의 성적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신뢰한다고 느낄수록 호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유학생 집단만을 따로 체류기간을 통제하여 분석해 보아도,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홀로 있는 유학생이 호주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16> 호주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3.590**	3.634**	4.067**	3.800**
D남학생	-.079	-	-.016	-
D11-12학년	-.505**	-.564**	-.506**	-.533**
D사립	.052	-	.071	-
모-학력	.057	-	-.028	-
D부-전문직	.017	-	.039	-
D부-사업가	.165	-	.206	-
D홀로유학	-.629**	-.320*	-.707**	-.406**
D기러기가족	-.375+	-	-.261	-
D양부모함께	-.277	-	-.283	-
호주성적			.122*	.135*
부모-비신뢰			-.223**	-.250**
R2	.133**	.112**	.204**	.185**

** : p<0.01 수준에서; * : p<0.05 수준에서; +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모델 2와 모델4: 단계분석임.

6. 한국 및 호주교육에 대한 장단점 비교

학생들에게 지금 호주에서 다니는 학교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의

10) 안병철(1997:156)의 조사에서는 미국 북가주 지역의 한국인 고등학생의 63% 현재의 미국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여서, 호주 유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와 비교할 때 호주학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 본 결과는 <표 17>에 정리하였다. 한국학교의 장점으로 끈끈한 친구관계(103명)를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41명),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학습분위기(25명)와 담임제도 등 교사와의 관계(24명)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학교의 단점으로는 암기위주이며 주입식이고 양이 너무도 많은 수업방식(89명)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는 체벌(53명), 입시위주의 공부(18명), 자율학습 등 너무 늦게 끝난다(13명)를 지적하였다.

<표 17> 학생이 이야기하는 한국과 호주 교육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친구관계 (103)	수업방식(암기위주, 주입식, 양)(89)
한국	한국어로 의사소통 (41)	체벌(53)
학교	학습분위기 (25)	입시위주(18)
	담임제도 등 교사와의 관계 (24)	너무 늦게 끝난다(13)
	자유, 자율 (52)	너무 자유롭다 (32)
호주	과목선택 (32)	사제시간(버릇없음) (30)
학교	교육방식 (30)	친구관계 (30)
	과목수가 적고 다양 (26)	인종차별 (20)
	학생 존중(칭찬) (14)	의사소통 (19)

*중복응답이 가능함

한편 호주학교의 장점은 자유와 자율(52명)이 가장 많았고,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32명), 토론식이며 체험식인 교육방식(30명), 과목의 수가 적고 다양하다는 점(26명), 그리고 학생을 존중해 준다(14명)는 것이었다. 반면에 호주학교의 단점으로는 지나친 자유(32명), 학생들이 선생님께 너무 버릇이 없다(30명), 친구관계가 한국 같지 않다(30명). 즉 “호주 애들과 한국계로 완전히 나뉘어져 놀게 된다. 너무 개인적이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밖에는 인종차별이 있다(20명)와 의사소통 문제(19명)를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으로 호주는 “지루한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한편 토요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인 선생님들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8>에 정리하였다. 한국인 교사들은 ‘학업에 대한 성취감 고취’ ‘도덕 및 예절 교육’ ‘인성교육’ ‘인간의 결속’ 등을 한국교육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교육의 단점으로는 한국인 교사들도 학생들과 마

찬가지로 획일적이며, 주입식 등인 교육방식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지나친 경쟁과 학벌위주를 비판하고 있었다.

〈표 18〉 한국인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한국과 호주 교육의 장·단점

호주교육과 비교시 한국교육의 장점	호주교육과 비교시 한국교육의 단점
도덕 및 예절 교육(5)/ 인성교육(2)	비창의적, 비자율적, 획일적 교육(17)
학업에 대한 성취감 고취(9)	개성말살(8)
애국심(3)	주입식(6)
공동체 문화 등 인간의 결속(2)	성적 및 입시 위주(7)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어 교육에 깊이 관여 가능	1등만이 인정받는사회/지나친 경쟁(6)
공립학교에 대한 신뢰감 높다(1)	학벌위주(3)
마약, 총기사건은 없다(1)	교사의 자기개발 및 교재연구 부족(2)
교사에게 순종적(1)	모든 과목에 잘하기를 강요(1)

*중복응답이 가능함

토요학교 한국인 선생님(31명)과의 인터뷰에서 조기유학의 장단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선생님들은 조기유학의 장점으로 “어려서부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서 국제인으로 자랄 수 있다(19명)”,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해외유학이 큰 역할을 한다(12명)”,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8명)”를 주로 지적하고 있었다. 한 선생님은 “약간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가능하면 더 많이 조국을 떠나야 한다. 해외 한인은 국가의 재산이다. 그만큼 국가의 무형 재산이 증가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부모님이 없어서 생기는 자유를 감당 못해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10명)”, “자아발달과 가치기준이 미숙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서양문화를 수용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9명)”,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는 몰라도 혼자 오는 유학은 자기조절 능력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유학이 될 수 없다(8명)”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영어를 배울 수 없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탈선하기 쉽다(3명)”, “영어를 배울 수 없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탈선하기 쉽다(3명)”, “영어를 배울 수 없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생들이 탈선하기 쉽다(3명)”, “영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대주의이다(3명)” 등 부모님이나 어머니와 함께 오는 유학은 몰라도 혼자서 오는 유학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다.

VI. 맺는 글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기유학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시드니 주정부 한글학교에 다니거나, 시드니 성당의 중고등부학생들을 교민자녀와 세 집단의 조기유학생으로 나누어, 이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심리적인 적응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조기유학생에 대한 협의 및 광의의 개념을 살펴본 후, 본 조사에서는 교육이민과 순수조기유학의 경계가 모호하였고, 부모의 유학 및 직장과 견으로 동행하였다가 홀로 또는 어머니와 함께 남는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순수조기유학 외에도 유학 및 파견으로 동행하는 자녀들도 조기유학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넓은” 의미의 조기유학 개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넓은 의미의 조기유학생과 교육이민 자녀를 포괄하여 분석을 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들의 유형을 교민자녀(교육이민), 홀로 있는 유학생, 기러기 가족 유학생, 부모가 유학직장 파견 등으로 양부모와 함께 있는 유학생으로 나누어 이들 네 집단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학교생활과 활동, 학업에 대한 열정, 외국인 친구 사귀기, 호주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있어서 유학생이 교민자녀보다 적응정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홀로 있는 유학생의 적응도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한인학생 가운데 홀로 있는 유학생은 학업 열정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이는 유학생 집단만을 비교하면서 체류기간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홀로 있는 유학생의 학업열중도가 가장 낮았다. 이들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체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호주생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선생님과의 면접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또는 양부모와 함께 와 있는 경우보다 홀로 와 있는 유학생의 경우에 실패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한국교육의 장점으로 끈끈한 친구관계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었으며, 주입식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호주교육의 장점은 ‘자유와 자율’이나 이 또한 지나치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자유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정부 토요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이므로, 조기유학생 중에서는 입시를 앞둔 Y11-12학년 학생이, 그리고

교민자녀 중에서는 이민시기가 오래되어 한국어가 어눌한 경우에는 ‘한국어’를 HSC 입시과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민온 지 오래된 교민의 자녀는 덜 표집되었고, 대신 이민온 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집단유형과 고학년 등을 통제하는 연구방법에 의해 어느 정도는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향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조기유학생의 적응을 다루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 본 연구인 호주 조기유학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부표 1〉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명	설명
종속 변수	1. 학업적응	1)호주성적 2)학업열정a	(5점) 1:상위70%이하 5:상위10%이내 〈표 9〉의 1)2)3)4)의 합 / 4의 점수
	2. 사회심리적 적응	1)스트레스 2)우울증6합a	(5점) 주관적인 본인 스트레스 정도 〈표 12〉의 6개질문의 합 / 6의 점수
	3. 호주생활 만족도	호주생활만족도	(5점) 호주생활에대한 전반적인만족
독립 변수	1. 학생특성	1)D남학생 2)D11-12학년 3)D사립	1:남학생, 0:여학생 1:11-12학년, 0:7-10학년 1:사립학교, 0:공립학교
	2. 부모배경	1)모-학력 2)D부-전문직 3)D부-사업가	(5점) 1:초등학교 5:대학원이상 (아빠직업) 1:전문직, 0:기타 (아빠직업) 1:사업경영직, 0:기타
	3. 집단유형	*D교민자녀 1)D홀로유학 2)D기러기가족 3)D양부모함께	*교민자녀는 기준집단 1:홀로있는 유학생, 0:기타 1:기러기가족유학생, 0:기타 1:양부모함께유학생, 0:기타
	4. 기타	1)한국성적 2)부모-비신뢰a 3)체류기간 4)영어실력a	(5점) 1:60점미만 5:90~100점 1)부모님은 내문제와 걱정을 이해하신다, 2)나를 믿으시고 신뢰하신다, 3)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신다의 3개 질문의 합 / 3의 점수 유학생만을 회귀분석할 경우에는 호주에서의 체류기간을 모델에 포함시킴. 그러나 전체 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유형과 체류기간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커서 제외함 대화,편지쓰기,책읽기,설명이해 등 6개 질문의 합을 6으로 나눈 점수

a: 요인분석 후 한 요인으로 유의하게 분류됨을 확인 후 처리하였음.

참고문헌

- 강지연(2002),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유학 선택-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3), “2003학년도 초·중·고 유학출국학생 현황”
www.moe.go.kr
- 김홍원(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 2005년도 제26차 KEDI교육정책포럼 발표논문, 2005년 5월 25일,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주(2001), “자비유학규제 완화와 조기유학에 대한 논란” 《한국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 안병철(1997),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Northern California)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안병철 지음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116-162.
- 안숙(1993), “서울 유학가듯 해외조기유학 가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 93(3):175-179.
- 엄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 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권 2호. pp.25-43.
- 임재훈(2005), “미국 현지 조기유학의 사례분석” 2005년도 제26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발표논문, 2005년 5월 25일,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 한국교육개발원.
- 조명덕(2000), “한국학생들의 영어권 교육체계로의 이동현상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제22집. pp.173-198.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싱글로벌 모자녀 가족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겨울호(통권 제64호). pp.148-344.
- 최경석 외(2003),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제2판》 서울: 인간과 복지.
- 최양숙(2004) “비동거 가족경험-‘기러기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준상, 기영화, 강양원, 박현숙, Sharan Merriam, 김성길(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 연

구》 제9권 제1호:199-220.

한준상, 기영화, 강양원, 박현숙, Sharan Merriam, 김성길 (2004), 《조기유학 로드맵》 서울: 청아출판사.

Andressen, Curtis(2001), "The educational mobility of Korean students" Occasional Papers, Centre of East Asian Studies, Monash Asia Institute, Monash University:1-30.

Bennell P. and T. Pearce(2003), "The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exporting education to developing and transitional econom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3:215-232.

Champion, Chris(1997), "Public Education Goes Global" Alberta Report/ Newsmagazine, 1/27/97, 24(7):35.

Gao, Mobo C.F. and Xi'an Liu(1998), "From Student to Citizen: A Survey of Studen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in Australia" International Migration, 36(1):27-48.

Green, Andy(1999), "Education and Globalization in Europe and East Asia: convergent and divergent trend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4(1):55-71.

Habu, Toshie(2000), "The irony of globalization: The experience of Japanese women in British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39:43-66.

Mazzarol, Tim and Geoffrey N. Soutar(2002), "'Push-pull'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student destination cho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6(2):82-90.

Nathason, Judith Z. and Maureen Marcenko(1995), "Young Adolescents' Adjustment to the Experience of Relocating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9(3):413-424.

Phillips, Matthew W. and Charles W. Stahl(2001), "International Trade in Higher Education Servic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rends and Issue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0(2):273-301.

Shu, Jing and Lesleyanne Hawthorne(1995), "Asian Female Students in Australia: Temporary Movements and Student Migration" Report, Bureau of Immigration, Australia.

Stewart, Frances(1996), "Globalization an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16(4):327-333.